

●연중 제 21주일 강론

가톨릭이란 ‘공변된’ ‘보편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열린 종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2000년 전 당시 유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장애인이든, 여자들이든, 죄인이든, 세리이든 그들 모두를 받아 들이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에, 그것도 모든 계층, 성별, 나이, 종교 등의 엄격한 차별이 있었던 때에 모두가 하나 되기를 열망하시며 포용의 참 평화를 사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 스승 예수님의 정신을 꼭 닮으려 노력하였던 사도 성 바오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 3, 27~28)

200년 전 그 같은 놀라운 보편된 가톨릭 신앙의 정신이 양반 선비들에 의해 이 땅에 들어 왔을 때, 그분들은 분명히 가톨릭 정신을 알았고 그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양반, 중인, 상놈, 노비, 천민, 백정의 계급이 뚜렷했던 그 시대에 그 모든 계급의 벽을 부수어 버리고 함께 평등의 삶을 사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호남 교회사 연구소 소장이신 김진소 신부님은 그때의 교우들 감격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천주님의 신비가 한 끼풀 벗겨질 때마다 감격에 자지러졌다. 이 깨지기 쉽고 허약한 뚝배기 같은 인간, 혹 불면 자취도 없이 사라질 허무한 인간, 정승집 개만도 못한 인간이 천주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형제라니, 이제 죽어도 무슨 한이 있겠는가.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광명의 빛이 이

땅을 찬란하게 비추었다.” 신앙의 인품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내려오니 그토록 빠른 시간에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가 예언자의 예언이 세상 모든 이에게 전해진 것처럼, 동방의 한국 땅에도 전해진 것입니다. 보편된, 가톨릭 그 이름으로 말입니다.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려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이사 66, 18)

걱정의 소리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하였습니다. 2000년 전, 200년 전 계급과 신분의 차별이 뚜렷했던 시대에도 가톨릭, 보편 신앙이 가능했었는데, 그 모든 차별이 없어진 오늘날 우리가 보편된 가톨릭 이름 값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사도들, 무수한 성인 성녀들의 삶이 가없어 지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자신들과 이해가 맞는 교우들과 신앙이 아닌 친목 모임으로 변질되어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편협된 바리사이 종교가 되어 나가는 행태에 걱정의 눈길을 보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본당은 본당대로 자기 본당에 안주하려 들고, 교구는 교구대로 자신의 교구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에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집니다.

어느 목사님은 오늘날 개신교의 잘못에 대하여 이렇게 통탄하셨습니다. “교회는 성직자들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시장 바닥의 상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도 쟁탈전,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한 십일조의 강요, 그것도 모자라 현금자 명단까지 후보에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진다. 또한 한국교회는 죄인을 양산하는 위선과 기만의 장소이다. 교회는 신도들에게 죄의식만을 심어주고 있다. 그 위죄론은 결국 교인들의 돈을 뜯어내는 목회자의 험박 무기로 전락하였다. 개인 기업을 상속시키듯

교회의 목회직을 자기의 왕국처럼 혈통으로 세습시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라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 말은 비단 개신교 교단에만 국한된 탄식과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 가톨릭도 어느 사이엔가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였던 자신들만의 성역을 쌓는 파렴치한 일들을 오늘 우리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신앙의 삶에 물어 보아야할 것입니다. 전통 신앙이라고 자부한다면 그 전통에 걸맞은 너그러움과 보편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미리 시작하였다고 모두 구원의 문에 입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구원을 위한 끊임없는 받아들이, 좁은 문으로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오늘 예수님 진노의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루카 13, 27)

배광하 신부(춘천교구 계재마니 피정의 집 원장)

자기와의 싸움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돌고 돌아도 마지막 승부는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납니다. 내가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밖에 다른 어떤 것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고독을 견디며 기도도 하고 명상의 시간도 갖는 것입니다.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 언더어 절하나이다.
 문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뵈옵수록 전혀 알 길 없습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슬음으로써 마음을 듣는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하나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않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랑 깊은 켈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게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뵈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사목회의(오늘)

장소: 이명희 형제 자택(T.519-896-9628)

미사 후 즉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목위원 임명

전례차장: 이우원(요한)형제

◎축! 2007 본당 신부님 배 골프대회 우승

지난 20일 열린 '본당 신부님배 골프대회'에서 저희 서부공소가 2007년도 단체우수상 및 개인별 남녀부문 최우수상과 각 부문 우수상을 두루 석권했습니다. (개인별 수상자 아래 참조)

* 남자 그로스 1등- 윤명원 형제

* 여자 그로스 1등- 윤명희 자매

여자 그로스 2등- 이승자 자매

* 남자 근접상 - 유무열 형제

스페셜 근접상 - 윤명원 형제

* 2007년도 단체 종합우승-(종합성적: 91타)

* 본당 신부님배 골프대회 현금 Donation에 협조해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 꾸르실료주말 251차 참가(오늘 마감)

▶일 시: 07년 9월 20(오후6시)-23일(오후6시)

▶장 소: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참가비: \$280 ▶마 감: 8월 26일

▶신청및 문의 : 김현태(요셉)간사

◎ 울뜨레야 모임

장소: 노재현 형제 보습학원

일시: 다음주 미사 후 (9월 2일)

◎ 책 주문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서적을 본당에서 이번에 주문코저 하오니 책이 필요한 교우는 책 제목과 주문자 성명을 적어 빠른 시일 내에 선교부장(박재영 형제)에게 신청 바랍니다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다.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택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현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오늘은 성전건립기부금 내는 날입니다.)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주간 전례

▶8월28일(화) 오후 8시, 성아우구스티노기념미사

▶8월30일(목) 낮 12시, 연중 제 21주간 목요일

▶8월30일(목) 오후 8시, 연중 제 21주간 목요일

▶9월 1일(토) 낮 12시, 성모신심미사

◎ 성모 신심미사

9월 1일 토요일 낮 12시 성모신심미사

◎온타리오 신앙대회

일시 : 9월 13일(목)-15일(토)

장소 : 13일, 14일 (예수성심성당에서 특강)

15일 미들랜드 성지 파견미사 및

김대건신부 부조상 제막식

강사 : 배영진(야고보)신부 ·인도출신

시간: 13-14: 7시 미사, 10시 강의마침

15일 :11시 30분 목주기도

12시미사 / 1시30분 부조상 제막식

참가신청 : 선교부장님

참가비 : \$ 30

2007-334

2007. 8. 26.

연중 제 21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성사 미사 전·후

병자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원 일 안드레아

미사전례

해설 김근효 차주 해설 이명희

화답 송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알렐루야

성가

입당 (34) 길이여 진리요 생명이신 주

봉헌 (215) 영원하신 성부

성체 (176) 믿음 소망 사랑

퇴장 (19) 주를 따르리

독서

8월 26일 신상우 신계연

9월 2일 석광원 석호영

9월 9일 김현태 김진선

9월 16일 김용하 김희선

봉헌

8월 26일 김호철 김창숙

9월 2일 신상우 신계연

9월 9일 석광원 석호영

9월 16일 김현태 김진선

2007년 8월 19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639.50

교무금 : \$ 70.00

Total: \$ 709.50